

# “소통 · 화통 · 형통에 역점”

### 익산시의회 하반기 의회 출발... 유재구 의장 등 취임사 사랑 ·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 다양한 목소리 청취 강조

제8대 익산시의회 하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했다. 유재구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으로 되새기며 소통 화통 형통의三通원칙으로 익산시의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 집행부와 의회 내의 소통 등 체계를 제도화하고 소통 채널의 다양화로 하 나된 익산을 만들겠다. 또한 익산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허심탄화한 소통과 협력으

로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화통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회 내부의 결속 및 화합에 앞장서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는 의미의 형통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철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도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철원 부의장은 “제8대 하반기 익산시의회가 진정 시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10년 후, 100년 후에도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익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

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 개인의 모든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전문성 교육과 의원연구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공부하는 의회, 대안을 모색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창의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시민들의 바램을 귀담아 청취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화답할 수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평범한 시민들이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코로나19 사태극복을 위해 보건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은 “도농복합 도시인 우리 익산의 농업·농촌 발전과 더불어 잠재되어 있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익산시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하겠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시가 여성농업인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 군산시,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순회교육 호응

### 640여 생활개선회원 대상

군산시가 여성농업인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순회교육을 지난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일과면 생활개선회를 시작으로 640여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 소득작물인 꼬꼬마 양배추 재배교육과 함께 꼬꼬마양배추 종자, 폴리비 품종인 폴리브리 종자를 함께 배부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설문조사와 함께 농작업 재해예방교육, 야생진드기 감염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농촌생활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장 내 밀집도를 고려해 교육시간 시차 운영과 1.5m 이상 거리 유지를 해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교육 참석자 전원 발열증상 확인과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문영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군산농업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지역 농업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개선 군산시연합회는 지난 1994년 조직돼 현재 1개 시연합회, 12개 읍·면·동 64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 참여 여성 농업전문인으로서의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 농촌지역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제8대 익산시의회 하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가운데 의정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 군산시, 시민 마스크 착용 생활화 당부

### 코로나 대규모 재확산 우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대규모 재확산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되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일 군산시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코로나 19와 관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수준 높은 군산시

민 의식과 시민의 협조가 뒷받침되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황이 잘 유지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며칠새 전주 익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청정지역이라 자부했던 광주, 전남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

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라며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보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최고의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덥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고 모범이 되어야 할 어른들도 대중교통, 직장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부탁한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시,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축 환경 조성

여성의 안전 보호와 예방을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 군산시가 한걸음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일련

표시(로고젝터)를 24개 지역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대상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실야시간에 여성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에 LED조명을 밝혀 안심귀가 하도록 시설물(로고젝터) 설

치하는 사업이다. 설치 지역은 지난 3월부터 군산경찰서와 간담동 등 협업으로 범죄예방 효과와 안전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설치 중에 있으며 로고젝터 설치가 완료되면 여성 뿐 아니라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 원광대, 광주·전북 MG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2020년 광주·전북 MG(Micro-Grid)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사업화 지원 기업협의체(WG) 킷오프 회의를 최근 교내 학생지원관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광주지역사업평가단이 지원하고 있다. 주관기관인 원광대 IINC+사업단은 광주와 전북 지역 26개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업협의체(WG)를 구축했으며, 기업 간 교류협력,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 글로벌 시장조사,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운영 등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47의 기

업협의체(WG)는 신에너지 응용복합 기술 개발 분야(썬체크프 외 7개 기업, 태양광 에너지 사업화 분야(썬대경산전 외 5개 기업, 소용량 태양광 기반 MG 개발 분야(썬에스이에너지 외 4개 기업, 전기안전 에너지 Q&M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분야(썬그리다에너지 외 6개 기업)이다. 기업 대표들 및 참여 교수가 함께한 제1차 WG 킷오프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 달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협의체(WG)와 전문 자문교수 매칭을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 지역 소식통

### 봄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익산소방서, 최우수 기관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020년 전북도 봄철 소방안전대책 종합평가에서 12개 소방서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기관(1위에 선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봄철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봄철 화재 위험요인에 따른 5개 분야, 공통 특수시책, 자율 특수시책 등으로 이뤄졌다. 소방서는 자체 특수시책인 대형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킴이'를 설치·운영하여 공사장 화재위험 요소 제거와 관계자 안전의식 계도로 공사장 화재 예방에 주력했다. 관내 주요 대형 공사장 6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장 출입구 내부 벽면 또는 기둥 등 가시성이 높은 곳에 피난 안내도, 자위소방대 조지도, 기초 소방시설을 배치하고 소방안전지킴이 구역을 설정 운영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도로 위 동물사체 수거 군산시 주민 만족도 UP

군산에서 전북도 최초로 시행중인 '도로 위 동물사체 24시간 수거사업'에 시민들이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시행 이후로 120여건 이상의 동물사체가 수거됐으며 특히 새벽시간과 공휴일에도 전화 한 통으로 즉시 수거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 밀착형 청소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는 '도로위의 지뢰'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해 실제로 2차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참혹하게 남은 로드킬 현장을 보는 운전자의 마음 역시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군산에서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한 '도로 위 동물사체 24시간 수거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아울러 시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사업추진이라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